

라틴아메리카 속의 한국·한국인

■ 칠레의 이견산업

서 라 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라틴아메리카에도 그동안 수많은 한국인과 기업이 진출했고, 또 수많은 성공 신화를 일구어냈다. 그중에서도 칠레에 진출한 이견산업은 장기적인 전망을 지니고 현지에 뿌리를 내린 모범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칠레 중남부의 소도시 라우타로에 있는 (주)포레스탈 라우타로(Forestal Lautaro S.A.)가 이견산업의 칠레 현지법인이다. 1993년 3월에 세워진 이 회사는 270명의 현지 인력과 125,600평방미터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판 및 베니어를 생산하여 칠레,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이견산업의 박영주 회장님과 칠레 진출 과정 및 한국-칠레 교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라연: 이견산업이 칠레에 진출한 동기는 무엇인지요?

박영주 회장: 80년대 천연목의 고갈이 우려되면서 천연림 삼판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솔로몬 군도로 진출하여 대규모 조림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온대림의 수급도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되어 온대림 조림에 성공한 뉴질랜드와 칠레를 두고 오랜 기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인구가 풍부한 칠레 진출을 결정하였습니다.

서라연: 칠레에 진출할 때 오늘날까지 꾸준히 현지 사업을 유지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나요?

박영주 회장: 처음부터 장기적인 계획으로 칠레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미 6회에 걸쳐 합판 공장을 증설했고 앞으로도 투자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라연: 우리나라 자원 외교에서 아쉬운 점과 이를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박영주 회장: 향후 인도를 비롯한 다른 후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 자원 확보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국가들은 정부의 국부펀드(Sovereign Fund)와 민간 부문이 서로 협력하여 향후 경제 발전에 필요한 원자재를 확보하고 있는 중이거나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중요한 원자재 확보를 위한 장기적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부펀드를 활용하고, 또 정부 및 민간이 목표 지역에 따라 협조/협의 기구를 만들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라연: 칠레 현지 적응 과정에서 특히 주안점을 둔 사안은 무엇인가요? 특히 현지 칠레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점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셨나요?

박영주 회장: 이진산업은 지난 35년간 해외의 여러 지역에 진출하면서 지금까지 현지에서의 문화충돌 없이 성공적으로 발전해온



이건산업의 칠레 현지법인 (주)포레스탈 라우타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해외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우리는 해외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투명성과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성을 가지도록 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우리의 원칙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자연에 대한 존경 그리고 일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칠레에서도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한편 현지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라연: 이건산업은 칠레에서의 성공을 칠레인들에게도 돌려주는 기업으로도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레에서 사회 환원 중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박영주 회장: 이견산업은 칠레 현지에서 장학사업과 어린이사생 대회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운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직원들을 위한 주택확보와 보급 프로그램을 칠레 정부와 협력하여 열심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현지 주민들과 회사가 음악회 등을 통해 서로간의 문화를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라연: 칠레에서 인상적인 것으로는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박영주 회장: 우선 칠레인의 품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칠레는 태평양과 안데스 산맥에 가로막힌 고립된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도 과거의 가치와 명예를 존중하는 생각 등이 강하게 남아있으며, 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청렴합니다. 또한 칠레의 자연도 인상적입니다. 칠레는 약 4,800km에 달하는 긴 국토 덕분에 북쪽의 사막지대에 최남단의 파타고니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후를 갖고 있고, 긴 해안선과 전국을 종단하는 안데스 산맥 등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다양한 기후 덕분에 다양한 과일과 수산물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고요. 또한 과거 스페인이 가져온 서구 문화와 원주민 문화가 혼합된 칠레의 예술도 매우 인상 깊습니다. 칠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경할 것이 많은 나라입니다.

서라연: 칠레에 파견된 한국인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과 가장 큰 애로 점을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주 회장: 칠레에 파견된 직원들은 칠레인의 품성, 문화 그리고 풍부한 먹거리를 가장 만족하는 요소로 꼽습니다. 애로점이라면 한국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라연: 칠레에서의 성공 경험을 살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진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영주 회장: 현재 우루과이 조림지 투자와 브라질 공장 투자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라연: 회장님께서서는 최근 한칠레협회를 조직하여 회장에 선임 되셨는데 한칠레협회는 언제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요?

박영주 회장: 2004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APEC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칠레 대통령과 문화, 경제, 과학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 양국의 경제, 문화, 학술, 정치 모든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모여 한국과 칠레 양국에 한-칠레협회, 칠레-한국협회 창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칠레협회는 작년 3월에 창립하여 현재 1년에 2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칠레-한국협회도 창립되어 전 대통령 후보인 안드레스 살디바르 라라인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두 협회는 앞으로 양국의 우호증진에 힘쓸 계획입니다.

서라연: 한국과 칠레 양국 관계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아돌포 카라피 칠레 대사에게 공로패를 전달받는 이견산업 박영주 회장(우측에서 2번째)

박영주 회장: 제가 오랫동안 봉사해온 경제협력위원회가 한-칠레 FTA 체결에 기여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FTA가 맺어지면서 양국 간 교역은 굉장히 활발해졌으며, 칠레 내 한국의 위상이 저희가 처음 진출했을 때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국 사이에 활발한 문화 교류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2006년 한국에서는 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칠레현대미술전>이 열렸고, 2007년 9월에는 칠레에서 한국 현대미술을 알리는 <박하사탕전>이 열리는 등 경제 외적인 교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 문화, 사람, 학생들 간의 교류, 나아가 관광 교류도 한층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